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

기 재 일

2010. 5. 19. (수) 조간

페이지수

총 5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당자

연구위원 이인형

연락처

02)3771 - 0833

E-mail

ihlee@kcmi.re.kr

※ 통신은 5월 18일(화) 12시, 일간지는 5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8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미국 및 유럽 각국의 높은 국가부채 수준과 성장의 정체로 더 이상 선진 시장만을 안전한 시장이라 말할 수 없는 실정임. 반면에 낮은 국가부채 수준과 견실한 거시경제 성장세, 그리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는 그 전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되기 시작함
- 본 컨퍼런스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유동성이 아시아시장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환율 급등,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시아개발은행은 주제발표에 앞서 연간 발간물인 "Asia Capital Markets Monitor"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시아 주식시장,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분석을 소개하였음. 각국의 건전한 거시정책, 유연한 환율 정책 및 금융시장 및 기관들의 위기 대응능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음

※ 유첨 : [요약]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 끝.

[요약]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

○ 이날 컨퍼런스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세션1에서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유입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발표되었고 Crédite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와 Morgan Stanley의 리서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음. 세션2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의 중앙은행 부총재 및 한국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정과 국내금융시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함. 세션3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융안정망에 관한 분석을 발표하였음.

○ 각 세션별 주요내용 정리는 다음과 같음

- － 제1세션에서 Dilip Parameswaran(Crédite Agricole) 이사는 아시아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선진국보다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방으로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 제2세션에서 조인강 국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과 Atchana Waiquamdee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유연한 환율정책, 적정 금융 및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규제 등의 최적 정책조합들이 빈번한 자본 유출입에 의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함
- － 제3세션에서 이인형 실장(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은 한국의 경우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수축이 문제의 핵심이었음에 비추어 봐서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언제든지 비슷한 경험을 반복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한국 원화가 국제통화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중앙은행간 스왑과 같은 국제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공조 없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처를 외환보유액 축적에 의존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재정상의 부담과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게 됨을 지적하였음

아시아 신흥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외 자본 유입에 대비해야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신흥시장 정부들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자본 유입 변동성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신흥시장들이 최근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며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자금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 국제 사태의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와 시장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ADB는 아시아 지역 주식, 채권, 외환시장 전망 및 성과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 “아시아 자본시장 모니터(The Asia Capital Market Monitor)”를 통해 풍부한 자본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험선호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여기에 선진국 자산의 낮은 투자 수익률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신흥 아시아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를 준비한 ADB 지역경제통합국의 스리니바사 마두르 국장(Senior Director, 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자본 유입이 회복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단기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 급격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변화, 환율 변동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Media Inquiries

Karen Lane
Tel: (632) 632 6138
Mob: (63) 920 938 6487
E-mail: klane@adb.org

Electronic versions of ADB news releases

ADB Online Media Center: adb.org/news
ADB web site: www.adb.org

아시아 지역 주식시장은 2009년 미국 달러 기준 7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역 통화 채권 발행도 2008년보다 41.4% 높은 3조 6천 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급격한 해외 자금 유입은 해당 지역 통화 가치에 상당한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신흥 아시아 시장의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높은 주식시장 수익률 때문에 추가 수익의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국채는 이미 가파른 수익률곡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통화 당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아시아 시장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각각 다른 비율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 유입이 계속되면서 통화 가치 절상 압박은 심화될 것이며, 일부 통화의 경우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본 유입의 급격한 상승은 포트폴리오 주식투자에 따른 것으로, 신흥 아시아 국가와 성숙된 시장 사이에서 수익기반 다변화를 꾀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본 보고서는 덧붙였다.

자본유입이 일시적이며 환율에 과도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자본유입에 대응하는 거시경제 정책 조치와 환율 움직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스리니바사 마두르 국장은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데에는 건실한 거시경제 관리, 유연한 통화정책, 탄력적인 금융시스템, 때로는 일시적이고 집중된 자본통제 등 다양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edia Inquiries

Karen Lane
Tel: (632) 632 6138
Mob: (63) 920 938 6487
E-mail: klane@adb.org

Electronic versions of ADB news releases

ADB Online Media Center: adb.org/news
ADB web site: www.adb.org

“아시아 자본시장 모니터”는 아시아의 11개 신흥시장인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을 포괄한다.

마닐라에 본사를 둔 ADB는 통합적 경제 성장,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통합을 통해 아태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1966년 설립 이래 아태지역 48개국을 포함, 현재 총 67개의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2009년 융자, 기부, 보증, 무역금융 촉진 프로그램, 주식 투자, 기술 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총 16조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집행했으며, 32억 달러에 이르는 협조유자를 제공한 바 있다.

Media Inquiries

Karen Lane
Tel: (632) 632 6138
Mob: (63) 920 938 6487
E-mail: klane@adb.org

Electronic versions of ADB news releases

ADB Online Media Center: adb.org/news
ADB web site: www.adb.org